

몸집 불린 한국당·몸값 오른 국민의당...與, 정국운영 부담 커져

국회 '3당 구도' 재편 ... 민주 전략 재검토 고민

예산안 심사·개혁 입법 앞두고 협상 카드 줄어들어

국민의당과 정책연대 최선인데 安대표 태도에 부담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 8명이 9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공식적으로 상실하고 국회는 4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3당 구도로 재편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원내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 시작한 상황, 특히 아직 주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내 지형 자체가 흐트러진 탓이다.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개혁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로서는 달라진 국회 구도에 맞춰 새로운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식 협상 테이블에 앉은 교섭단체가 줄어든 만큼 대응해야 할 경우의 수는 줄어든 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카드도 적어져서 적절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원내 전략 담당자들의 일반적 얘기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하게 맞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의 입당으로 몸집이 불어나서 이를 막아내기가 수월하지 않게 됐다.

이날 복당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한 한국 지도부는 '좌파 정권의 폭주 저지'를 외쳤다. 복당 의원들도 탈당의 명분으로 '좌파 정권 견제'를 내세운 만큼 강력한 대어투쟁을 예고했다. 현재로서는 각종 쟁점에 대해 협상의 여지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게다가 그동안 보수 야당과 협력을 싸움을 할 때 힘을 보태던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측과 호남 중진들 간 갈등으로 힘을 한 곳에 모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갈등을 극복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경우에도,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터'로서의 영향력이 더 커진 상태라 오히려 눈치를 더 봐야 하는 형국이다.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의 경우 오는 1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뽑히겠지만 언제 추가 탈당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중한 대외 행보를 할 것이 확실시된다. 어느 당 하나

확실한 우군이 없는 셈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3당 체제로 구성돼 협상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면에서는 이전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당이 다른 야당에 비해 대부분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에는 원내 3당과 4당은 눈치를 보가면서 무언가를 요구했지만, 이제는 국민의당이 모든 작전권을 쥐는 것"이라며 "자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국민의당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결정권이 훨씬 강력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매 국면마다 머리를 숙이는 마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 정책연대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지도부는 여당과의 정책연대에 미온적 입장이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이 아닌 바른정당 잔류파와 손을 잡는 쪽에 지속적 관심을 보여왔다. 바른정당과 정책연대와 관련, 안 대표 측은 호남 중진의 반대에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연대를 할 경우, 이들의 의견은 여권과 맞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면 야당과 연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 뿌리'인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합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상에서 이혼한 부부 사이가 가장 멀다는 말처럼 국민의당과는 정서적으로는 가깝지만 안철수 대표의 태도 때문에 손을 잡기 힘든 상황"이라며 "더욱이 국민의당·바른정당·한국당 등 주요 야당 모두가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어서 질서있는 협상이나 연대, 정책개편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열린 전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는 박지원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찌감치 달아오른 6·13 지방선거

광주·전남 입지자들 출판기념회 열고 지지모임 결성

내년 6·13 지방선거 분위기가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다.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입후보 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지지모임을 결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시장 후보군 중에서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오는 26일 광주김대중센터에서 지지모임 성격인 '무등산포럼' 창립행사를 개최, 출마를 공식화한다. 이에 앞서 강 전 의원은 정책연구소인 '광주성장 the CUBE'를 출범하고 광주와 서울 등지에서 잇따라 모임을 열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또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오는 12월 8일 광주김대중센터에서 자신의 책 '광주의 권력' 출판기념회를 연다. 민 정장 측은 "3년 전 지역민에게 출간을 약속했던 '광주의 권력' 책자를 소개하는 자리"라며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의 '출사표'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해석이다.

최영호 남구구청장도 오는 12월 10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지지모임인 '광주·전남 상생발전포럼' 출범식을 갖는다. 지난 9월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한 최 청장은 이번 포럼 출범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당내 경선 준비에 나선다.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은 애초 오는 25일 광주김대중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현재 국회에서 내년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무기한 연기해둔 상태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광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 결성을 앞두고 있다. 이 연구소에는 기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형식 민주당시당위원장과 이병훈 동남을 위원장도 현재는 당직 수행에 집중하고 있지만 물밑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

최근 전남지사 출마의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달부터 '호남 몫' 최고위원직까지 맡으면서 중앙당과 지역을 오가는 광복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그동안 당원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해 당원들을 독려하는 등 당원 중심의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여론 조사도 1위이고 권유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요즘은 이런 상황이 거세다보니 출마 쪽으로 많이 기울어가고 있다"며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국민의당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지원 의원도 예상외로 많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전부터 전남지역 구석 구석을 돌며 바닥을 훑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 기반이 약한 전남 동부권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최근에는 전남대학교 특강과 국민의당 전남도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 통일 관련 특강에 나서는 등 사실상 전남지사 선거전을 준비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았다.

적격 의견에는 유 후보자가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기록됐다. 또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으로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재산 형성 과정 등 도덕성 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점이 제시됐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창설회원이었다는 점이 제시됐다. 부적격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해당 단체를 "순수학술단체이고 편향성이 없다"고 답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일부 답변에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점이 기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NAVER 검색엔진에 그린장례식장 등록 완료

300년 수령 소나무 숲, 그 향기 그윽한 그린장례문화원!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예(禮)와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1. 저렴한 장례비용, 소문난 음식 맛, 실시간 정산 시스템
2. 고객님이 찾기 쉽고, 주차가 편리한 대형주차장 완비
3. 감동적인 의전과 고급 호텔수준의 명품장례식장
4.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섬기는 그린장례문화원

사랑의일대 그린은, 사랑의 열매가 지정한 '착한기업'입니다

편리한 시설 넓은 무료주차시설

예기치 못한 사고시 그린을 이용하시면, 그린장례문화원의 경조위로금과 특별의전으로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전속모델 신구

www.그린장례식장.com

24시간 대기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 (문흥동 876-17)

대표자 김영관 회장